

파리의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2018년의 파리(Paris)는 매력적이며 기분 좋은 자극을 선사한다. 여전히 생기 넘치며,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21세기의 수도 파리는 계속해서 빛나고 진화하며 두 팔 벌려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각종 전시 이벤트를 비롯해 새롭게 오픈 하는 화려하고 이색적인 장소들로 꽉 차 있는 파리의 문화 캘린더는 이 도시의 가장 큰 매력이다. 박물관, 트렌디한 바(bar), 갤러리, 디자인 호텔, 문화 유적, 명망 높은 레스토랑 등 파리는 팔색조의 매력을 통해 파리지역은 물론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에게 놀라운 감동을 선물한다.

축제와 이벤트의 도시, 파리

파리에서만 매일 무려 300회 이상의 행사가 펼쳐진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호응을 얻는 행사를 손꼽으면 음악 축제(Fête de la Musique), 박물관의 밤(Nuit des musées), 문화유산의 날(Journées du Patrimoine), 7월 14일(혁명 기념일)의 불꽃놀이, 센 강변을 해변으로 탈바꿈 시키는 파리 플라주(Paris Plages), 백야 축제(Nuit Blanche)의 다양한 예술 퍼포먼스, 도시 곳곳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 그리고 샹젤리제 거리에서 맞이하는 새해 행사 등이 있다.

2018년 기대를 모으고 있는 주요 전시회이자 예술계 거장들을 만나볼 수 있는 굵직한 전시로는 푹상부르 박물관의 틴토레토(Tintoret), 루브르 박물관의 외젠 들라크루아(Eugène Delacroix), 자크마르 앙드레 박물관(musée Jacquemart André)의 메리 카사트(Mary Cassatt), 오르세 미술관의 '피카소. 블루&핑크(Picasso. Bleu et rose)', 파리 장식미술 박물관(musée des Arts décoratifs)의 '아티스트들의 보석, 피카소부터 제프 쿤스까지(Bijoux d'artistes, de Picasso à Jeff Koons)'와 그랑 팔레(Grand Palais)에서 열릴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전이 주목 할 만하다. 현대 미술의 팬이라면 피악(FIAC: 국제 현대미술 전시회)과 파리 아트페어(Art Paris Art Fair)와 더불어 그랑 팔레의 호안 미로(Joan Miró)전, 마울 미술관(musée Maillol)에서 열리는 자코메티(Giacometti)전, 풍피두 센터에서 열리는 입체주의(Le Cubisme) 전을 주목하자.

패션을 사랑하는 이들은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각각 열리는 파리 장식미술 박물관과 파리 의상박물관(Palais Galliera)을, 스타일과 인테리어 마니아들은 파리 디자인 위크(Paris Design Week), 메종 & 오브제(Maison & Objet), 푸스 뒤 디자인(Puces du Design 디자인 베품 시장)과 디자이너스 데이(Designer's Days)를 방문하느라 여념이 없을 것이다.

미식 분야도 빼놓을 수 없다. 푸딩(Fooding) 축제와 옴니보르(Omnivore), 프랑스 식도락 축제(Fête de la Gastronomie), '구 드 프랑스(Goût de / Good France)', '투스 오 레스토랑(Tous au restaurant)'과 테이스트 오브 파리(Taste of Paris, 시그니처 메뉴 시식) 행사는 매년 미식가들의 일정을 바쁘게 만든다.

또한, 올해 파리에서는 연중 다양한 스포츠 경기가 열린다. 프랑스 국제 테니스 대회 롤랑 가로스(Roland-Garros), 투르 드 프랑스(Tour de France), 승마경기인 프리 다메리크(prix d'Amérique), 오크스 경기인 프리 드 디안(Prix de Diane), 론진FEI월드컵(Longines FEI World Cup) 결승전, 파리 마라톤(marathon de Paris), 그리고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파리 포뮬러E 대회(Prix de Paris de Formule E)가 대표적이다. 여름에 열리는 스포츠 행사 가운데에선 8월에 열리는 게이 게임즈(Gay Games)가 단연 돋보일 것이다. 이 밖에도 파리는 르 골프 내셔널(Le Golf National)에서 진행되는 42회 라이더컵(Ryder Cup)과 13회 유럽여자핸드볼 챔피언스리그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며 스포츠 수도로 자리 매김한다. 2023년 럭비 월드컵과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일종의 맛보기 행사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와 대중들을 위한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 농업 박람회(Salon international de l'agriculture)는 2월에, 재팬 엑스포(Japan Expo)는 7월에, 샤희 뒤 쇼콜라(Salon du chocolat)와 120회를 맞이하는 파리국제모터쇼(Mondial de l'Automobile)는 10월에, 그리고 숙박업계와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이들의 관심을 끌만한 파리 호텔박람회(EquipHotel)는 11월에 열린다.



© Musée du Luxembourg



© Centre Pompidou Dist. RMN-GP



© Ryder Cup 2018

© Amélie Laur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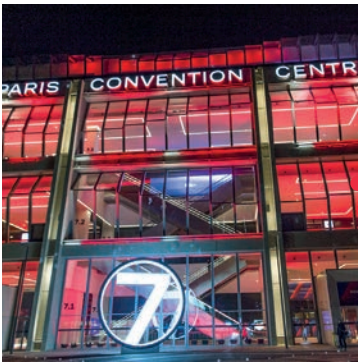
지금의 파리

파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새롭게 선보이는 문화 장소들로 빛을 발하고 있다. 2016년 말, 파리 향수 박물관(Grand musée du parfum)이 개관하며 조향 예술이 한층 고귀해졌다. 2017년엔 입생로랑 박물관(musée Yves Saint Laurent)과 센 뮤지컬(La Seine Musicale)이 세계 섬(Île Seguin)에 문을 열어 패션과 음악이 한층 부각됐다. 라파예트 앙티시파시옹(Lafayette Anticipation)재단은 2018년 봄, 마레 지구에 현대미술을 발전 시키고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장소를 선보이려 준비 중이다. 새롭게 문을 열게 될 이 디지털 박물관의 이름은 ‘아틀리에 데 루미에르(Atelier des Lumières)’로, 11구에 위치한 옛 주물공장에 자리 잡았다. 현대미술을 다루는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Fondation Louis Vuitton)과 Art42(프랑스 최초 스트리트 아트 박물관)을 비롯해 필하모니(Philharmonie)와 같이 최근 4 년 동안 새롭게 선보여진 장소들뿐만 아니라, 기존 박물관들인 피카소 미술관, 로댕 미술관과, 최근 11 콩티 박물관(Musée du 11 Conti)으로 재탄생한 파리 조폐국(Monnaie de Paris)이 새 단장을 마치며 파리는 다시 한번 예술의 도시로서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빛의 도시 파리는 제7의 예술로 불리는 ‘영화’에서, 더 이상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배경지로 자주 등장한다. 관광객들은 아멜리에(Amélie Poulain)부터 미드나잇 인 파리(Midnight in Paris)를 지나,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과 신비한 동물사전(Fantastic Beasts and Where to Find Them)등 유명 영화의 배경이 되는 장소와 배우들의 흔적을 낭만의 도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국제단편영화제인 ‘48시간 국제영화제(The 48 Hour Film Project)’가 올 3월 처음으로 파리에서 개최되면서 파리와 영화계의 끈끈한 관계를 기념하기도 한다.

파리는 최상의 조건 속에서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열기 위해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아코르호텔 아레나(AccorHotels Arena, 공연과 콘서트가 열리기도 한다)에 이어, 파르크 데 프랑스(Parc des Princes)경기장 또한 2016년 중순에 리노베이션을 마쳤으며 2017년 10월엔 낭테르(Nanterre)에 유 아레나(U Arena)가 문을 열었다.

© Viparis - Built Studio



선택의 폭이 다양한 파리의 장소들은 비즈니스 행사 주최자들에게도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양한 회의가 열리는 세계적인 수도이기도 한 파리는 박람회 및 기업 행사를 개최하기에도 적합하다. 특히, 포트 드 베르사유(Parc des Expositions de la Porte de Versailles)에 위치한 유럽에서 가장 큰 회의장인 파리 컨벤션 센터(Paris Convention Centre, 최대 35 000명 수용, 넓이 72 000m²)는 최근 새롭게 공개되며 파리가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가 리노베이션을 앞둔 포트 드 베르사유 전시장(Parc des Expositions de la Porte de Versailles)은 변형의 귀재로 불리는 건축가들의 손을 거쳐 2024년경,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단장을 마칠 예정이다. 같은 바람을 타고, 올 8월 파리 사클레(Paris Saclay)의 경제 중심지에 새로운 국제회의장(Palais des Congrès)이 문을 연다. 파리에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점점 더 많은 선택권이 생기고 있다. 혁신적인 컨셉을 추구하는 장소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으니 말이다.

매력적인 도시, 파리

© Hôtel de Crillon



파리의 삶의 예술은 날이 갈 수록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호텔 업계는 더 많은 수용성과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다. 럭셔리 호텔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파리지앵과 관광객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역사적인 배경을 지닌 팔라스 호텔들 또한 변화를 멈추지 않는다. 리츠 호텔(Ritz)과 크리옹 호텔(Crillon)에 이어, 센 강 남쪽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인 루테시아 호텔(Lutetia)과, 푸케 바리에르 호텔(Fouquet's Barrière)이 손님들에게 새로운 면모를 선보인다. 또한, 파리 스테르(Parister), 유마(Yooma), 브라슈 파리 호텔(Brach Paris)부터 도시의 이미지 재생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오키 호텔(Okko hotel)이나 니엵스 바이 큐리오 컬렉션 바이 힐튼(Niepces by Curio Collection by Hilton)에 이르기까지 파리에 위치한 호텔들은 혁신적이고 독특한 컨셉의 테마를 통한 새로운 숙박 문화 경험을 약속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젊은이들을 겨냥한 숙박 시설은 각자의 색깔을 뽐내며 새로운 여행 세대들을 맞이하고 있다.

미식에 있어서도 셰프들은 차별화된 창의성이 돋보이는 레스토랑을 선보이고 있다. 생 라자르 역의 에릭 프레송(Eric Frechon)과 북역의 티에리 막스(Thierry Marx, 레스토랑 ‘Étoile du Nord’ 셰프)가 대표적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랭 뒤카스(Alain Ducasse)는 베르사유 지역에 레스토랑 오르(Ore)를 새로이 선보인 뒤 부르스 광장(Place de la Bourse)에 스푼 두(Spoon 2)를 열었다. 또한, 최근 비스트로(Bistrot)와 미식을 뜻하는 가스트로노미(Gastronomie)의 합성어인 비스트로노미(Bistronomie)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관련 레스토랑도 최근 배가 되었다. 새롭게 오픈하는 장소들은 지방 특산물을 주재료로 한 진정한 맛을 선보인다. 유명 요리학교의 미식 아틀리에와 미식 테마 여행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더불어, 스트리트 푸드와 지역 먹거리를 즐기는 마니아들을 위한 로커보어 레스토랑의 성공도 주목해 볼만 하다.

© OTCP



파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패션, 럭셔리 그리고 쇼핑의 중심지이다! 파리는 패션위크는 물론이고 쇼핑 마니아들이 주목하고 있는 여름(7월), 겨울(1월) 세일로 관광객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연중 새로운 상품과 볼거리로 다양한 플래그십 스토어와 팝업 스토어들이 고객들의 시선을 끌기도 한다. 게다가 오스만(Haussmann), 몽마르트(Montmartre), 마레(Marais)지구, 생 제르맹 데 프레(Saint-Germain-des-Prés)등 12개의 주요 관광 지역에서는 일요일에도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새 소식으로는 카루셀 뒤 루브르(Carrousel du Louvre)에 새로운 매장들이 들어섰으며, 150개의 매장을 구비한 포럼 데 알(Forum des Halles)이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재개관하였고, 라 빌레트(la Villette)에는 빌업(Vill'Up)이 문을 열었다. 식료품을 다루는 라 그랑드 에피세리(La Grande Epicerie)가 파시(Passy)에도 생겨났고, 이탈리아의 유명 식료품점 이탈리아(Eataly)가 드디어 프랑스에도 진출한다. 루이 비통은 방돔 광장에 다시 한번 등지를 트면서 고급스러움을 더 했다. 파리 프랑땅 백화점(Le Printemps)은 뷰티 섹션을 넓혔으며 오로지 식도락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고급 식료품점 에디아르(Hédiard)의 재오픈 소식과 2018년에 예정된 갤러리 라파예트 백화점의 상점리제점 오픈 소식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브랜드들은 트렌디한 거리에 자리를 잡으며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명품거리와 매장들을 통해 다양한 상품이 선보여지는데, 이는 빈티지 패션부터 프렌치 터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패션니스타들을 유혹한다.

© Folies Bergère



파리의 밤은 축제 분위기로 북적거린다. 장르와 시대를 구분 짓지 않는 파리지영 스타일은 모든 취향을 만족시킨다. 황홀한 매력을 선보이는 전통적인 카바레, 힙한 클럽, 이색적인 공간, 일시적인 파티 장소 등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들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저녁 외출을 즐기는 이들은 르 153(Le 153), 로사 쉬르 센(Rosa sur Seine), 발록(Balrock), 페르슈아(Perchoir), 푸앙 에페메르(Point Éphémère), 클레리에르(Clairière), 벨빌루와즈(Bellevilloise), 디방 뒤 몽드(Divan du Monde), 최근에 새단장을 마친 엘리제 몽마르트(Élysée Montmartre), 새 프로그램을 준비한 살 플레엘(Salle Pleyel)공연장을 찾으면 된다. 카바레와 희극을 좋아한다면 폴리 베르제르(Folies Bergères) 극장을 주목하자. 장 폴 고티에의 패션쇼를 이색적인 공연으로 각색한 장 폴 고티에 패션 프릭 쇼(Jean Paul Gaultier Fashion Freak Show)가 2018년 10월 펼쳐질 예정이다. 원더러스트(Wanderlust), 요요(Yoyo), 소셜 클럽(Social Club), 바다붐(Badaboum)과 같은 이색적인 장소에서 열리는 파티와 더불어 바토(WATO)와 서프라이즈(Surprise)와 같은 크루들이 선사하는 개성 있는 파티도 놓치지 말자. 이미 잘 알려진 파리의 음악 축제인 락 앙 센(Rock en Seine), 웨더 페스티벌(Weather Festival), 위 러브 그린(We Love Green) 페스티벌, 롤라팔루자(Lollapalooza)와 더불어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테크노퍼레이드(TechNOParade)와 솔리데이즈(Solidays)의 캘린더를 잊지 말고 체크해 놓자. 뿐만 아니라, 2018년에 3회를 맞이하는 퀴즌 데 피에르테(Quinzaine des fiertés)는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기관들의 이니셔티브를 전달할 예정이다.

그린 시티, 친환경 도시 파리

© Nicky Bouwmesteer



460개 이상의 공원과 정원이 구비된 파리는 친환경 관광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예를 들면, 교통 분야에서는 버스 노선 정비와 트램 시설 확장, 자전거 대여 시스템과 전기 자동차 대여 시스템 '오토리브 Autolib' 서비스 개선,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메트로의 16개 노선 정비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센 강둑을 리브 드 센 공원(Parc Rives de Seine)으로 꾸미고(남쪽은 2013년부터, 북쪽은 2016년부터), 레퓌블리크 광장 주변을 보행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파리는 환경과 활동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비전을 따라가고 있다. 나시옹 광장(Place de la Nation) 또한 보행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 될 예정이며, 2018년의 시작과 함께 바스티유 광장도 보행자용 공간으로 변신하면서 7월 기념비(Colonne de Juillet)가 대중들에게 개방된다.

환경 보호는 호텔 업계에서도 여전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제다. 460개 이상의 숙박업소가 파리관광안내사무소의 « 파리에서의 지속가능한 숙박 »을 위한 헌장에 서명했고, 이와 같은 친환경 숙박시설 인증을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파리지영과의 교류나 파리 고유의 느낌을 찾고자 하는 방문객들에게 « 파리스러운 » 생활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숙박시설도 많아 졌다.

파리는 모두를 위한 여행지이다. 개방적이고, 관대하며, 장애인들에게도 편리한 여행을 제공한다.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점점 다양해지며, 볼거리도 더욱 풍부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새롭게 피카소 박물관, 파리 필하모니, 루이 뷔통 재단 박물관, 로댕 미술관이 장애인들의 관광과 활동을 돕고 있다.

© Patrick Tourneboeuf



변화하는 도시, 파리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 파리는 하루가 다르게 영역을 넓히며 변화하고 있다. 먼저, 무료 와이파이(Wi-Fi)가 주요 공공장소, 공원, 정원, 카페, 문화 유적지, 샹젤리제 거리 등에서 제공되며 관광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역동적인 관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관광산업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 세계 첫 관광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웰컴 시티 랩(Welcome City Lab), 디지털 콘텐츠와 창조 산업을 중심으로 기량을 펼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르 카르고(le Cargo)재단과 프레이시네 홀(Halle Freyssinet)에 자리잡은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캠퍼스 스테이션 F(Station F)가 대표적인 예이다.

주변 지역 또한 파리와 함께 도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파리 북동부의 변화는 18구, 19구부터 주변의 생드니(Saint-Denis)와 오베르빌리에(Aubervilliers)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파리 동부는 포르트 데 릴라(porte des Lilas) 주변으로 재정비되고 있다.

© Luc Boegly



파리 외곽 지역에서도 즐거움은 계속된다. 파리 생투앙(Paris Saint-Ouen) 벙커시장, 새 단장을 마친 뱅센 성의 생트 샤펠(Sainte-Chapelle du château de Vincennes), 몽트뢰유(Montreuil)에서 이브리(Ivry)까지 이어지는 스트리트 아트 거리와 비트리(Vitry)에 위치한 MAC/VAL 현대 미술관은 일찌감치 파리의 매력을 모두 만끽해 본 이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바티뇰(Batignolles) 지역에 새롭게 자리잡은 최고재판소(Palais de Justice)와 같은 굵직한 건축물은 파리의 도시계획과 건축 분야에 관한 열망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파리 개조 계획 1(Réinventer Paris 1), 파리 개조 계획2와 같은 저명한 건축가들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도시계획 프로젝트들은 파리 시의 역동성을 나타내면서 새로운 파리의 모습을 보길 원하는 파리지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있다.

숫자로 보는 파리

© Groupe ADP / Sylvain Cambon



숫자로 보는 파리의 관광

- 2곳의 공항: 유럽 최고의 허브 / 6곳의 기차 역(국제선)
- 파리-런던 구간 2 시간 15분 소요
- 파리-바르셀로나 구간 6시간 25분 소요
- 20 000대의 대여용 자전거 구비
- 110 000개 이상의 객실 보유 - 2020년까지 7 000개의 객실이 추가 될 예정
- 297개의 지하철 역/ 파리를 가로지르는 데 필요한 시간 13분

파리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

합리적인 가격

- 샌드위치 1개: 5 € / 크루아상 1개: 1€
- 커피 한 잔: 2 € / 레스토랑 일반 메뉴: 15 €
- 지하철 티켓 한 장: 1,90 €
- 20곳 이상의 박물관 입장이 무료

즐길 거리

- 파리 오페라: 연 약 450회의 공연
- 10 000 여 곳의 바(bar)와 레스토랑
- 매일 500회 영화 상영
- 5 738여 곳의 레스토랑
- 매일 100편의 유람선 운항

풍부한 유산

- 37 개의 다리
- 10 100 톤의 강철로 만들어진 에펠탑
- 465 곳의 공원과 정원
- 2 000 여종의 동물 서식
- 6 500 년의 역사

트렌드

- 25 000 명의 아티스트가 파리에 거주
- 하루 10 편 이상의 영상이 파리와 5 000여 곳 의 세트장에서 촬영됨
- 패션위크에 100여개국 이상이 참가
- 13구 스트리트 아트 거리에서 볼 수 있는 25 개의 벽화

다양한 문화 유산

- 200 개의 조각상이 있는 킬리리 정원
- 36 000 개의 작품이 전시된 루브르 박물관
- 200개의 성당
- 매년 1 2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노트르담 성당
- 모나리자를 관람하는 관광객 방문자 수: 하루 15 000명

쇼핑

- 17 500곳의 상점, 4곳의 백화점
- 12 % 세금 감면 혜택(비 유럽 국가에 해당)
- 연중 82일의 세일기간

비즈니스 회의

- 파리에서 1 118개의 회의 개최(2016년 기준)
- 15 곳의 컨벤션 센터와 전시관
- 전시 공간 면적 600 000 m² 이상

주요 행사

- 하루 300개 이상의 행사 유치
- 뉘 블랑쉬(Nuit blanche: 백야 축제) 행사 참가자 수: 130만 명 이상
- 100만 개 이상의 전구 상젤리제 거리 크리스마스 장식에 사용

© OTCP / Marc Bertrand



© OTCP / Daniel Thierry



파리 관광안내사무소

세계 제1의 관광도시 파리는 고전적인 유산에 못지 않은 트렌디한 모습으로 관광객을 매료하고 있다. 파리 관광안내사무소(Office du Tourisme et des Congrès)는 파리의 핵심을 관광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치로 보는 파리 관광안내사무소

- 3가지 주요 임무: 안내, 정보 제공, 홍보
- 매년 500 000 명 이상이 관광안내사무소 안내센터 방문
- 2017년 파리관광안내사무소 사이트(PARISINFO.com) 월 페이지뷰 100만 건, 방문자수 80만 명
- 4개의 주요 사이트 (언어 :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 7개의 미니 사이트(언어 :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 SNS « 파리 슈템 Paris je t'aime » (2017년 말 기준)
- 페이스북: 350 000 팬 • 트위터: 300 000 팔로워 • 인스타그램: 370 000 팔로워
- 120만 부의 가이드맵이 10개 언어로 제공되며 300 000 부의 무료 가이드북 이용 가능(영어 또는 프랑스어): Paris City guide, Paris Guided Tours and Visits, Accessible Paris
- 파리의 공식 시티패스인 '파리 패스립(Paris Passlib)'은 유람선, 시티투어버스,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은 물론 60곳이 넘는 박물관과 관광지를 무료로 입장 할 수 있게 해준다. 옵션 추가 시에 펠탑 입장도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 파리 패스립 미니, 2일, 3일, 5일용을 어린이, 청소년, 성인 요금에 구매할 수 있다.



여행사들을 위한 서비스

- 사진 다운로드 사이트(불어, 영어, 스페인어, 독어)
- 기사 또는 브로셔 제작을 위한 5 000여장의 다양한 고화질 사진 다운로드 가능
- 보도 자료(다양한 언어로 제공)
-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 Paris 2018 » 자료 제공
 - « 예술과 문화 »와 관련된 3종류의 자료(프랑스어/영어)
 - « 라이프 스타일 »과 관련된 5종류의 자료(다양한 언어로 구비)
 - « 파리의 사계절 »과 관련된 3종류의 자료(불어/영어)
 - « 맞춤 여행 » 테마 별로 구성된 4종류의 자료(프랑스어/영어)
- 월간 BtoB뉴스레터 ParisNews 발송(프랑스어/영어)
- 연간 브로셔 What's up in Paris 1부 (총 4 000부)
- 이벤트 주최측에 제공하는 가이드 Meeting in Paris 1부 (총 3 000부)
- 미디어 전용 사이트 - press.parisinfo.com
- 업무용 트위터 @ParisCVB
- 파리 포스터 4장(크기: 60x80)



매체 현지 문의

+33 (0) 1 49 52 53 27
 press@parisinfo.com
 http://pro.photos.parisinfo.com/
PRESS•PARISINFO•COM